

파리바게뜨, 대한민국 베이커리 정상 넘어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 선도

파리바게뜨는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통해 베이커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이다. 1986년 첫 매장을 개점한 이래, 1997년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전국에 약 3,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업계 최초 딜리버리 서비스인 ‘파바 딜리버리’를 선보였다. 2004년부터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해 해외고객들에게도 파리바게뜨만의 고객만족을 전달하고 있다.



PARIS BAGUETTE

지역농가 돕는 상생프로젝트

파리바게뜨가 전라남도 무안군과 양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무안 지역농가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상생경영 철학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행복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무안 양파는 강원도 평창 감자, 제주도 구좌 당근, 논산 딸기에 이은 네 번째 프로젝트다. ‘무안 양파빵’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수급한 햇양파를 활용해 선보인 제품으로, 상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양파의 풍미와 단짠의 맛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무안 양파는 양질의 황토 토양에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해풍을 맞고 자라 식감이 아삭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으로, 파리바게뜨는 신선한 무안 햇양파의 맛과 모양을 담은 ‘무안 양파빵’ 시리즈를 전국 매장에서 선보였다.

파리바게뜨가 출시한 무안 양파 신제품은 ▲네 가지 토핑과 아삭아삭 양파가 듬뿍 들어간 양파꽃빵 ‘양파꽃이 피었습니다’ ▲무안 양파의 단면을 형상화한 크림치즈 양파빵 ‘아이엠 무안양파’ ▲남녀노소,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어니언링 ‘너와 나의 양파고리’ ▲양파, 햄, 치즈, 옥수수콘이 들어간 피자빵 ‘양파 품은 달’ 등이다.

ESG 경영 실천으로 가치 소비와 농가 상생을 실현하다

파리바게뜨는 무안 양파빵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전남 무안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강원도 평창과 제주도, 충남 논산 시에도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행복상생 프로젝트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은 가치 소비에 동참해 지역농가와 상생하는 CSV(공유가치창출)모델이다. 파리바게뜨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우리 농가 판로 확대와 농산물소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SPC그룹은 2012년부터 영천 미나사과, 의성 마늘, 강진 파프리카 등 지역 농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제품을 출시해왔으며, 2014년 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1조 원 규모의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행복한 동반성장 협약’을 맺는 등 농가와 상생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황재복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베이커리 부문에 10년 연속 1위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수상은 베이커리 브랜드를 이끄는 혁신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오랫동안 파리바게뜨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맛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며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한결같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한 맛, 즐거운 감동을 전하며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